

태극전사 졌지만 희망 봤다

〈한국 0:1 스페인〉

남아공 월드컵 D-6 세계 최강 상대 대등하게 맞서 ... 오늘 남아공 입성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적 강호 프랑스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났을 때의 분위기다. 경기 결과는 졌지만, 태극전사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을 준비 중인 한국 대표팀이 4일 오전(한국시각)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티볼리노이 경기장에서 치른 스페인과 평가전에서 대등하게 맞서다 아쉽게 0-1로 졌다.

한국은 이날 평가전에서 후반 40분 곤살레스 헤수스 나바스(세비야)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30일 벨라루스(0-1패)에 패한 이후 2연패를 당하며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반전에 실패했지만 강호 스페인을 상대로 몇 차례 위협적인 골 상황을 만들면서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됐다.

골키퍼 이운재(수원)는 8년 전을 이야기했다. 한국 대표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그해 5월2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 치른 마지막 평가전에서 박지성과 설기현이 골을 넣어 2-1까지 앞섰다가 후반 내리 두 골을 내주고 2-3로 패했다. 하지만 당시 경기에서 얻은 자신감은 월드컵 본선에서 4강 신화를 쓰는 밑거름이 됐다.

이운재는 "프랑스전 때와 비슷하다.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자신감을 얻은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90분을 모두 뛰면서 스페인의 공세를 잘 막아낸 중앙수비수 조용형(제주)은 "비록 무실점으

로 끝내지는 못했지만, 세계적 선수들과 당당히 맞섰다. 어떤 팀과 붙어도 좋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개인적인 소득이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조용형과 호흡을 맞춘 중앙수비수 이정수(가시마)는 "후반 초반까지는 괜찮았는데 스페인의 고가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좀 힘들었다"고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 "오늘 경기를 하면서 어느 상대와도 해 볼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역시 중앙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뛰면서 맹활약한 김정우(광주)는 "축구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경기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다.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감호와 맞선 소감을 전하고 나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라 힘들었다. 월드컵 본선에서 만난 아르헨티나보다도 스페인이 더 강한 것 같다. 우승 후보를 상대로 자신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수비수 이영표(알 힐랄)는 "수비에서는 의도대로 전술적으로 잡혀있고, 공격에서도 강팀을 상대로 많은 찬스를 얻어낸 것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른쪽 풀백 오범석(울산)은 "상대가 크게 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해볼 만했다"고 당차게 말하면서 "뛰어난 선수들과 경기한다는 것이 설레기도 했다. 미드필드에서 패스와 볼 관리가 정상급이라 고전했지만 우리도 찬스를 만들어냈다"며 전혀 주눅이 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후반 교체 투입돼 몇 차례 찬스를 펼친 골키퍼 정성룡(성남)은 "한 골 먹었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경기였다. 자신감도 생겼다"면서 "월드컵 본선에서도 항상 경기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남아공 입성을 앞둔 각오까지 드러냈다. /연합뉴스



4일 새벽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티볼리노이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스페인의 평가전에서 이창용이 문전을 향해 힘차게 뛰어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제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앞두고 23개팀 대표자 회의가 4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혜기자 choi@kwangju.co.kr

제17회 무등기 고교야구 14일 개막

23개팀 열전 8일... 휘문·동산고 첫 격돌

제17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의 대표자 회의가 4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23개 고교팀의 대표자가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는 대회 출전에 따른 주의사항과 경기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추첨을 통해 각 팀이 격돌하게 될 대진도 확정됐다.

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4일 휘문고와 동산고의 개막전을 시작

으로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열전을 펼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무등기 우승팀 개성고를 비롯해, 올 대통령대회를 거머쥔 휘문고 등 전국 야구명문들이 우승기를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 광주에서는 광주일고·동성고·진흥고, 전남에선 화순고·각각 출전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세돌 4개월째 랭킹 1위

'폭주기관차' 이세돌이 6월 랭킹에서도 정상에 지켰다.

4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프로기사 6월 랭킹에서 이세돌 9단은 9732점을 얻어 9598점에 그친 이창호 9단을 제치고 4개월째 1위를 지켰다.

올 1월에 바둑계에 복귀한 후 4월까지 24연승의 무패가도를 질주하던 이세돌은 5월 들어 잠시 주춤했다.

하이원리조트배 명인전 개막전에서 '싸움꾼' 백홍석 7단에게 패해 연승행진이 멈췄다. /연합뉴스

중학생 골퍼 8연속 버디 행진

화순제일중 조대권 'EMAX배 중·고골프' 6위

화순제일중 조대권이 'EMAX배 제21회 스포츠조선 전국 중·고골프대회'에서 6위를 차지했다.

본선 첫째날 5언더를 기록한 조대권은 4일 군산 CC에서 열린 남중부 본선 이틀째 경기에서 이븐

파를 기록, 종합합계 5언더파로 6위를 차지했다.

조대권은 지난 2일 열린 예선전에서 무려 9언더파 63타를 쳐, 공동 1위로 본선에 올랐다. 이날 예선에서 전반을 1언더로 마친 조대



권은 후반들어 11번부터 18번 홀까지 무려 8연속 버디를 기록하는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조대권은 지난 4월 화순에서 열린 전남도민체전 개회식에서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와 함께 성화 점화를 했던 골프 유망주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측

▲한명진·조춘자씨 차남 옹희군 김창호·조익순씨 장녀 명희양=5일(토) 오후 1시 경북국 워딩컨벤션 2층(미소홀)

▲양재환(나주시청 사이클감독)·김영미씨 장남 인군 김희권·임영숙씨 장녀 지은(전남대병원) 양=5일(토) 오후 1시30분 상무지구 조선컨벤션웨딩 춘추관을 1층.

▲주옥균(전 광주시 건설국장)·이정애씨 차남 성호(코엠커머셜 사장)군 임재익(서울 남양주택(주) 사장)·인재순씨 장녀 최희양=13일(일) 낮 12시50분 광주에별루션 워딩컨벤션 3층(컨벤션홀)

부음

▲송진탁씨 별세 종도·소희·소연·소윤씨 부친상=발인 5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문길순씨 별세 이일모·경모·민수·일순씨 모친상=발인 5일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송진탁님 (남/75세) 부/자형 송동도 / 노숙환 송소희, 송소연 / 김광주 모/재 송수유	호실 201호 발인 06월 05일 장지 양학당원
故 문길순님 (여/81세) 부/자형 이일모 / 이만수 이길순 / 조병수 모/재 이일순 / 조병수	
호실 401호 발인 06월 05일 장지 양학당원	참가요인의 명패를 부탁드립니다. 남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추억의 낭만 콘서트

2010.6.13(토) 15시, 19시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376-4488